

다산포럼

김정남



설악산 오한스님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보도를 통해 그의 동안거 해제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 법문이 좋아 그로부터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다. "20여 년 전 한 영장을 만났어. 늙스그레한 영감이 시신을 돌보는데 그런 지극정성이 없...

2004)를 읽은 적이 있었다. 다양한 화제로 이 책은 내게 불교를 비롯하여 실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오관계(五觀戒)가 불가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다.

오관계와 사찰음식의 상품화

(付己德行全缺應供) 음식껏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지 않고 (防心離過食等爲宗) 오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으로 알고 (正思量藥爲瘡形枯) 마침내 도를 얻기 위해 이 음식을 먹노라(爲成道業應受此食)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입해야 하는지...

더 없는 경구이다 싶어, 나는 이 글을 적어 가지고 다니며 진정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집에 고마움의 표시로 남겨놓고 오곤 한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필경 그만큼의 공덕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어느 절에 큰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중이었다. 수행자는 큰절 입구까지 와서 잠시 계율가에 앉아 세수를 하고 땅을 식혔다.

곳은 다르다면서 발길을 돌려 큰스님 밑으로 갔다. 초발심자정문에도 '너희가 배가 고프거든 산에 있는 나무껍질과 풀잎, 나무열매를 먹어라. 그것도 배불리 먹지 말고 주린 배를 위로하라'는 말이 있다. 불가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

NGO 칼럼

사회적기업의 꽃을 피우자



정향자

무한경쟁의 시대에 '착한소비'로 상징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은 이제 소수의 관심사를 벗어나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토대로 지역사회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지역민의 삶에 뿌리내린 가고 있다. 우리 지역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 서비스부문에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고 있다.

문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밀착형 사회적기업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색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재의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성숙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교통수단



심정보

광주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통분야에서도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탈피하여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인 인프라 구축 및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전거 교통, 특히 생활자전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소음도 거의 없다. 100cal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걸어서는 1.6km, 자전거는 4.6km, 자동차는 80m를 이동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노면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목적지에서 자전거 보관·정비·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중인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광주전, 영산강 광변지역 5개소에 '자전거 터미널'을 구축해 임대와 수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인병 발병 부르는 나트륨 섭취량 대폭 줄이자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만병의 근원이며, 각종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어린이들이라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의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자 숫자가 흡연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러 짜게 먹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식인 김치나 장류, 국물에 소금의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식탁성이 더해져 짜게 먹는 것이다. 몇십 년간 먹은 음식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막연한 건강 불감증이 썩이다.

습관은 식사때 뭇가 국을 안 먹고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 국물을 다 마신다는 것이다. 이 국물이 나트륨 과다섭취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취량은 4618mg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에 비하면 2배를 넘고 미국보다는 1000mg 정도 많이 먹는 양이라 한다.

시설

실체 불명 단체와 세계비엔날레 개최라니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비엔날레대회'라는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 공동 개최 파트너인 '세계비엔날레재단'의 실체가 불분명해다다 각국 비엔날레재단이 소속된 대표성 있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고 부산비엔날레재단은 이름을 들어보긴 했으나 별 의미 없는 단체여서 관심 밖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광주재단은 정확한 조사 없이 세계재단과 세계비엔날레대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주재단이 밝힌 세계재단 내부와 임시사무실 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으니 이런 허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삼남매 죽음 부른 사이버 목사부부의 광산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성군 보성읍에서 교회를 운영 중인 박모(43), 조모(34·여)씨 부부가 종교에 심취해 독감에 걸린 자녀 3명을 감금한 채 수일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했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들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채 폭행에 초죽음이 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를 질렀다 모자라 열흘간 음식물도 주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無等鼓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지역감정을 끄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지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맞대결 이후 영호남 차별에 따른 지역주의 폐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동진정책' (東進政策)을 통해 한국 정치의 융합을 꾀하려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자신의 폐해는 고스란히 영남지역에서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화학적 정치를 실현하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두 사람 모두 단련 대한민국은 최고 권력자의 출신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부'사회가 됐다.

동진(東進) 정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간, 특히 영호남간 대결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지역간 목숨을 건 정치 경쟁은 모든 선거에서 기형적인 구도를 만들었다. 영남과 호남을 갈라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매우 후진적인 정치구조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각종 문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오는 4월 11일 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합당 후보들이 부산·경남(PK)의 일부 क्षेत्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결과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